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과속에 따른 속도 조절, 주행 상태는 지속

■ 기업/산업분석

에스원, 롯데칠성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TPC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경제분석 | 박정우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채권분석 | 오창섭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설화
크레딧분석 | 김기명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부쑤언토
해외채권 | 정영록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김시우

과속에 따른 속도 조절, 주행 상태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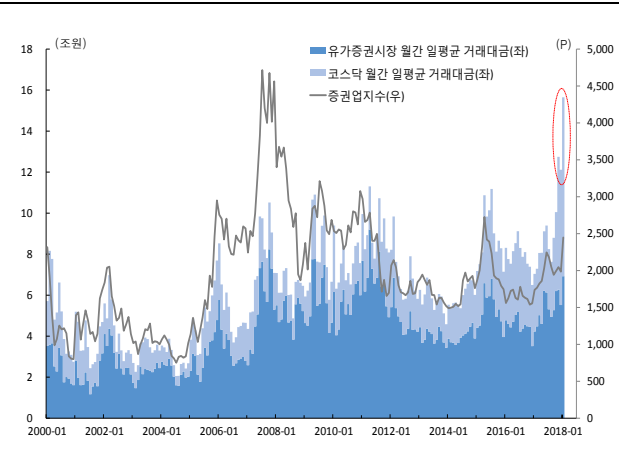
파죽지세를 보인 1월 코스닥, 과열 우려보다는 추세에 순응
코스닥 스몰캡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에 재등정할 경우 종목장세 본격화 예상
소형 성장주 일변도의 변화 조짐, 밸류를 고려해 소형 가치주 비중 제고

1. 빨라도 너무 빨랐던 코스닥

거래 폭발과 함께
900P선에 올라선
코스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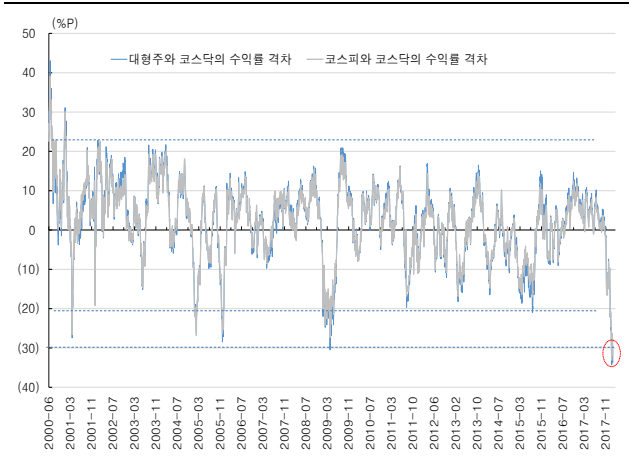
작년 10월부터 등정을 시작한 코스닥은 1월에는 50P 단위가 아니라 100P 단위의 뒤편박질을 하고 있다. 연초 800P선을 돌파하며 출발했던 코스닥은 단숨에 900P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다. 빨라도 너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을 3개월째 추월하고 있는 가운데 1월에는 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역사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역사적 최고치까지 벌어진 코스피(대형주)와 코스닥의 수익률 격차(60거래일을 기준)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코스닥시장은 유례없는 급등세를 구가하고 있지만 좀처럼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정 없는 뒤편박질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1] 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기록한 1월 증시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유례없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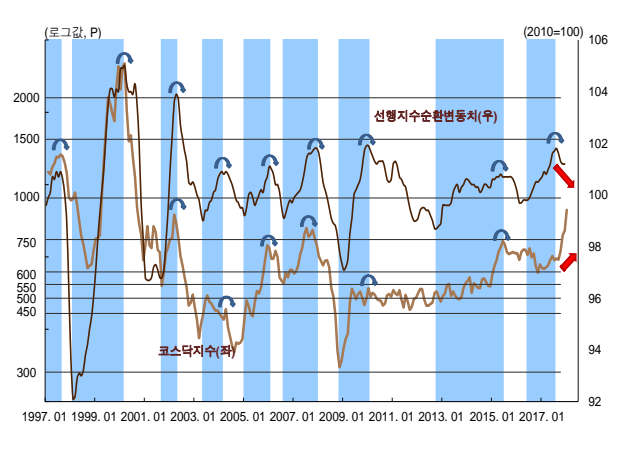
주) 수익률 격차는 대형주 및 코스피의 60일 수익률에서 코스닥의 60일 수익률 차감한 값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대외내 금리 급등이
코스닥 균열의
빌미로 작용

급등 행진이 투자자들에게 수익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수익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유례없는 코스닥지수의 초강세를 감안하면, 조정 우려를 도외시 할 수만은 없다. 대내외 금리 급등과 미 증시 하락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며 코스닥지수는 930P를 고점으로 일방적 상승 흐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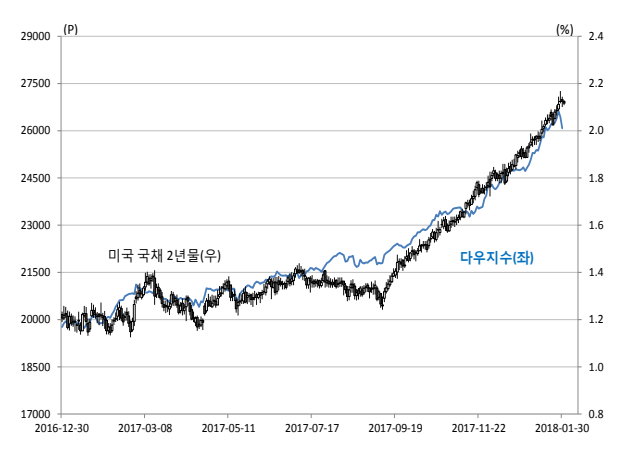
그 동안 애써 외면해 놓았던 조정에 대한 고민을 책상 위로 다시 올려놓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특히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흐름이 국내 경기흐름과 현저히 괴리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과거 경기지수와 코스닥지수의 방향성은 동행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행지수순환변동치의 고점과 코스닥지수의 고점이 예외 없이 일치성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경기 개선을 사이 좋게 공유하면서 진행된 금리와 주가의 동시 상승국면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고점을 예단하고 손을 뺄 수도 없다. 최근 오름폭을 감안하면, 한번만 더 오르더라도 차익실현 시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림 3] 국내 경기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경기 개선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 금리와 주가



자료: 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2. 그래도 추세에 순응

사전적 선택은
추세 순응이 답

주지하다시피 ‘가격변수의 고점은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해 보면, 급등에 따른 반락 우려보다는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터져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버블이다. 고점에 대한 예단은 터질래야 터질 수도 없는 ‘재평가 장세’를 ‘버블 장세’로 오인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이 유례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는 하나 사전적인 선택은 추세에 대한 순응이 답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초강세에 따른 반락 우려보다는 코스닥시장의 상승추세 지속을 상정한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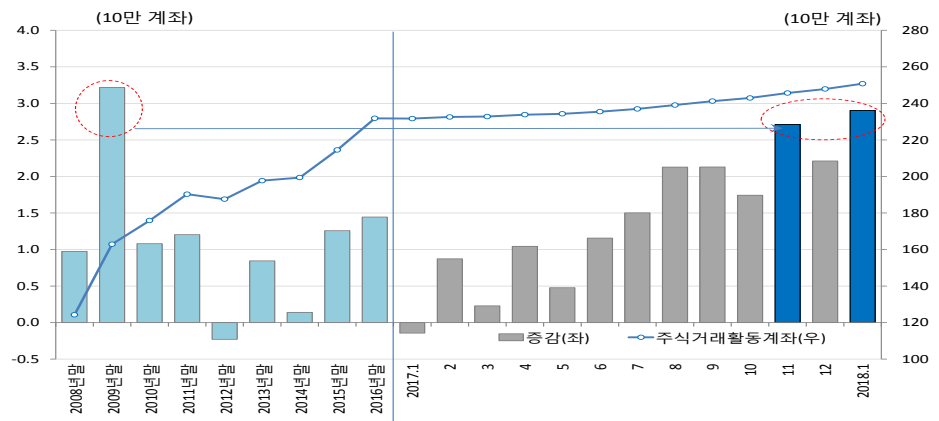
우선 급등국면 이후 출현하는 첫 번째 조정은 감내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첫 번째 급조정은 뒤이어 빠른 반등이 연출되기 마련이다. 적어도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정에 과민할 필요는 없고 고점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은 오랜 경험칙이다.

둘째, 코스닥지수 900P선은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2017년의 코스닥 기업 개선 폭만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지수대이다. 더구나 지난주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 비추어 볼 때 금년 글로벌 경기의 순항은 예고된 사실로 금년 코스닥 기업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추는 요인이다. 즉, 4%에 육박하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에서 코스닥 기업이이익 감익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작년 4분기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코스닥 시장의 실적 장세가 금년에는 리레이팅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조정이 오더라도 강세장 하에서의 조정일 수밖에 없다.

1일 1만개식
증가하고 있는 주식계좌
30조원을 돌파한
고객예탁금

셋째, 유동성이 뒷받침된 강세 마인드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기존 잣대로 코스닥시장의 상승 포텐셜(Potential)을 너무 협소하게 평가해 과열을 속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년 1월 들어 하루에 1만개식 주식계좌가 늘어나 1월 26일 현재 주식거래활동계좌 수는 2,508만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급반등세를 보였던 2009년의 주식계좌 증가 속도에 버금가는 것이다. 증권사의 위험관리로 인해 신용융자잔고가 11조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활동계좌수 급증세에 수반된 고객예탁금 30조원 돌파는 코스닥지수의 추가적인 우상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이다. 코스닥이 유례없는 강세를 연출한 상황이고, 균열 조짐으로 인한 차익매물 출회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커 보이지만, 아직은 과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림 5] 빠르게 증가하는 주식거래활동계좌 수



자료: 투자금융협회, 한국투자증권

3. 개별종목으로의 온기 본격 확산 가능성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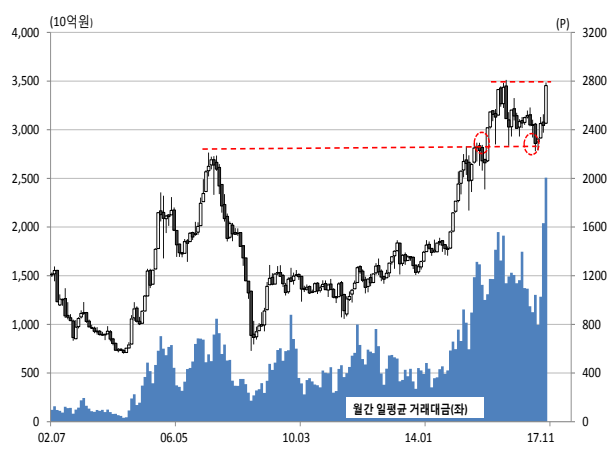
역사적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닥 스몰캡지수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액면분할을 단행함에 따라 시장 관심이 삼성전자로 재집중되는 양상이다. 이전 상장을 이슈로 한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 관심 또한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에 집중되었던 시장 매기가 쉽게 완회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코스닥 스몰캡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으로 집중되었던 시장 매기가 물밑에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나 코스닥 스몰캡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경신 행진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개별 종목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2016년 8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던 전기전자업종과 2017년 10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제약업종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 역사적 신고가 경신 업종은 상당기간에 걸쳐 관성을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소형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에서
벗어나 소형 가치주의
비중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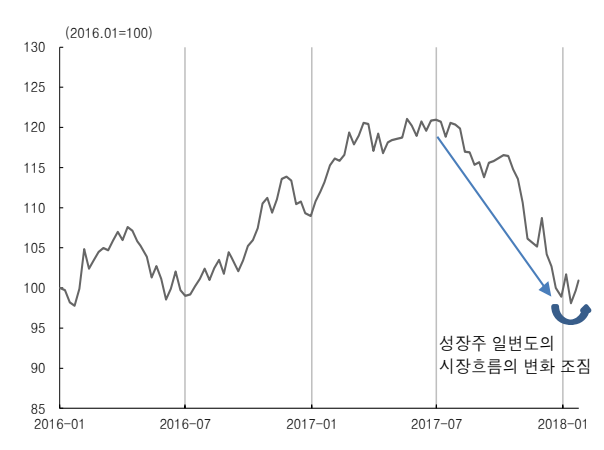
더구나 코스닥과 소형주지수는 1월 효과 이상으로 1분기 효과를 발휘한다는 계절성에 비추어 볼 때 2월중에도 중소형주들의 상대적 강세는 지속될 공산이 크다. 다만 코스닥시장이 초과열 상태인 가운데 금년 들어 소형 성장주 일변도의 시장흐름에 변화 조짐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전술이 필요해 보인다. 2월중 스몰캡 전략은 소형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에서 벗어나 소형 가치주의 비중 제고가 합리적 선택지로 여겨진다.

[그림 6] 역사적 최고치를 목전에 둔 코스닥 스몰캡지수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소형 성장주 대비 소형 가치주의 상대 강도



주) 소형 성장/가치주의 상대강도는 와이즈에프엔의 WMI500 Samll 성장/가치주를 사용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관련해서 2월중에는 예정된 이벤트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과 예견된 연간 실적주에 대한 선취매 전략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아래에는 평창올림픽 관련 중소형주, 코스닥 스케일업펀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 KRX300지수에 편입된 유망 중소형주 그리고 호실적 발표가 예견된 주요 중소형주를 선별했다.

<표 1> 평창올림픽 관련 중소형주

(단위: 배)

분류	종목명	2017F		분류	종목명	2017F	
		P/E	P/B			P/E	P/B
5G	서진시스템	16.5	2.0	광고	지투알	10.2	1.1
	대한광통신	34.0	6.4		나스미디어	28.0	5.7
	이노인스트루먼트	34.8	*4.0		인크로스	22.7	3.5
	삼지전자	16.4	1.8	중계권	SBS	26.3	0.9
	디티앤씨	*20.5	*1.2		SBS미디어홀딩스	*47.1	*0.6
	오이솔루션	*19.4	*1.4	관세환급	글로벌텍스프리	N.A	*3.2
	다산네트웍스	N.A	1.8		케이티스	*11.7	*0.7
레저	이수페타시스	N.A	*1.0	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	N.A	1.1
	용평리조트	29.5	1.2	항공	티웨이홀딩스	*14.6	*3.6
	레드캡투어	*13.8	*1.0	마케팅	갤럭시아에스엠	N.A	*1.7

주) P/E와 P/B는 1월 30일 종가 기준, *는 Trailing Twelve Months (TTM)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표 2>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

(단위: 배)

업종	종목명	2017F		비고
		P/E	P/B	
IT가전	에스피지	123.8	*1.7	정밀제어용 모터(DC 모터, Stepping 모터, AC 모터) 및 감속기 부품 제조 및 판매
IT가전	피앤이솔루션	21.6	3.1	전자충방전기와 전원공급장치의 제조 및 판매, 2차전지 후공정 및 ESS 장비 1위 업체
IT하드웨어	신성델타테크	7.7	1.0	세탁기, 에어컨, LCD,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차전지 사업 준비 중
IT하드웨어	빅솔론	10.4	*1.0	POS용 영수증 프린터, 프린팅 메커니즘 및 미니프린터 제조 업체
기계	비에이치아이	7.0	1.1	국내외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를 제작, 판매
기계	로보스타	*15.8	*3.4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전반에 활용되는 이송/적재용 로봇을 주력 생산
기계	포메탈	24.1	1.5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내진설계용 밸브 제품을 생산
기계	신진에스엠	10.2	1.1	정밀가공설비를 이용하여 기계산업에 기초부품인 표준 플레이트를 생산
레저	참좋은여행	22.4	2.3	양질의 저렴한 여행상품 제공, 여행 알선 및 항공권 판매
미디어/교육	정상제이엘에스	13.5	1.8	어학 교육업 및 온라인 교육업 등 학원사업 영위
미디어/교육	대원미디어	21.8	*1.6	만화영화의 제작 및 판매, 캐릭터 이센싱 및 캐릭터 프랜차이즈업 영위
반도체	디엔에프	13.1	1.9	AI CVD제품, 하드마스크 필름용 ACL제품, 확산방지막용으로 사용되는 TiN제품 제조
반도체	테스나	11.6	1.4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업체로 웨이퍼 테스트가 주력
비철/목재	파버나인	15.1	1.0	알루미늄 소재 가공을 통해 프리미엄 TV, 의료기, 가전제품 등의 외관 제품 제조 및 판매
소매(유통)	도이치모터스	18.4	1.4	BMW, MINI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영위
소프트웨어	서호전기	8.9	1.3	항만 크레인 및 조선소의 크레인을 구동 제어하는 전기제어시스템 제조 및 판매
소프트웨어	알티캐스트	36.1	1.2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소프트웨어	이크레더블	16.1	*4.3	기업 대상 신용인증 서비스 사업 영위
유틸리티	KG ETS	14.7	1.1	폐기물처리 전문업체
의류/완구	오로라	10.4	1.3	캐릭터 완구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신규 캐릭터 출시가 이어지고 있음
자동차	크린앤사이언스	19.0	3.4	자동차용 여과지를 비롯 가정용 및 산업용 필터사업 영위

주) P/E와 P/B는 1월 30일 종가 기준, *는 Trailing Twelve Months (TTM) 기준. 시가총액 2,000억 미만, 과거 3년 CB, BW,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無, 전년대비 영업이익의 증가한 코스닥 상장사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표 3> KRX 300 편입 종목 중 유망 중소형주

종목코드	종목명	소속시장	GICS업종	주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A145720	덴티움	KOSPI	건강관리	69,700	771
A002020	코오롱	KOSPI	소재	62,400	753
A005880	대한해운	KOSPI	산업재	30,800	752
A192530	광주은행	KOSPI	금융	12,800	657
A034310	NICE	KOSPI	금융	16,650	631
A030190	NICE평가정보	KOSDAQ	금융	10,050	610
A031430	신세계인테리어	KOSPI	경기관련소비재	84,700	605
A004430	송원산업	KOSPI	소재	25,050	601
A005500	삼진제약	KOSPI	건강관리	41,350	575
A006060	화승인더	KOSPI	경기관련소비재	10,200	564
A281820	케이씨텍	KOSPI	IT	20,250	402

주1) 주가와 시가총액은 1월 30일 기준, KRX 시가총액 1조원 미만
 2) 현재 KOSPI200, KOSDAQ150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 중 상대적으로 실적 안정성이 담보된 종목을 선별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표 4> 2017년 연간 실적 개선이 예견된 주요 중소형주

(단위: 배)

업종	종목명	2017F		비고
		P/E	P/B	
IT하드웨어	하이비전시스템	11.9	2.3	카메라모듈 자동검사시스템 전문업체
IT하드웨어	S&K폴리텍	*10.8	*1.1	휴대폰 및 LCD제품 등의 충격흡수용 소재인 고밀도 폴리우레탄 Foam Sheet 생산
디스플레이	제이스텍	*3.8	*2.2	반도체 장비, 평판디스플레이(FPD) 장비 제조 및 판매
디스플레이	베셀	*6.8	*1.8	LCD, OLED, 터치패널용 In-line System 및 각종 장비 생산
디스플레이	세미시스코	*11.1	*2.1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
디스플레이	힘스	8.0	*2.3	OLED 제조관련 Mask공정 및 Glass 검사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 판매
디스플레이	테라세미콘	6.3	1.8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장비, 재료,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영위
디스플레이	로체시스템즈	5.0	*1.2	TFT-LCD,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생산용 이송장비 및 레이저커팅 장비 판매
반도체	아진엑스텍	*16.2	*2.6	산업자동화 모션제어시스템 및 모듈 관련 사업 영위
반도체	GST	*5.8	*1.4	반도체 공정용 가스정화장치 스크리버와 웨이퍼 주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칠러 생산
반도체	뉴파워프라즈마	13.2	2.1	박막공정과 식각 공정 장비에서 사용되는 RPG와 Plasma 발생 전원 공급 모듈 제조
운송	대한해운	6.2	1.1	SM그룹의 계열 회사로 해상화물운송 및 해운 대리점업 영위

주) P/E와 P/B는 1월 30일 증가 기준, *는 Trailing Twelve Months (TTM) 기준, 2017년 1~3분기 누적 실적(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2016년도 연간 실적(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30% 이상 상회하는 P/B 3배 이하 중소형주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롯데칠성(005300)

코카콜라 가격 인상의 영향은?

코카콜라 음료가격 인상키로

- 코카콜라가 2월 1일부터 전체 215개 제품 중 17개의 출고가격을 평균 4.8% 인상키로 함
- 코카콜라는 2016년 11월 콜라 등 음료가격을 5.5% 인상해 평균 ASP를 2% 이상 올렸고, 이후 다시 1년 3개월만에 가격 인상 추진

롯데칠성의 음료가격 인상 가능성도 높아짐

- 이로써 롯데칠성이 음료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종전보다 높아짐. 동사는 2016년말 이후 코카콜라 제품과의 가격 괴리가 더 벌어지자 2017년 5월 CVS향 탄산음료가격을 7% 올리는 등, 음료 ASP를 1% 미만 인상한 바 있음
- 이때 가격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그룹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을 듯
- 앞으로 롯데칠성의 음료 제품은 CVS 이외 채널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

점유율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초점 맞추는 롯데그룹

- 우리는 동사가 점유율 확대보다는 이익 증가를 위해 중기적으로는 가격을 올릴 개연성이 있다고 봄
- 신동빈회장 체제에서 '내실경영'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동사가 이미 음료시장 점유율 40% 이상의 절대적 강자 자리를 확보한지 오래됐고, 점유율 추가 상승 시 수반되는 노력 및 규제를 감안할 때, 가격을 올려 이익의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 기업가치 상승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
- 참고로 2017년 연간 음료 매출액은 1조 5,551억원으로 추정되며 음료 ASP가 1% 인상될 때 동사 EPS는 1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매출액(십억원)	2,299	2,369	2,376	2,541	2,727
증가율(%)	5.3	3.1	0.3	6.9	7.3
영업이익(십억원)	143	149	83	127	176
순이익(십억원)	100	69	185	66	104
EPS(원)	73,389	51,073	214,263	81,217	128,129
증가율(%)	433.6	(30.4)	319.5	(62.1)	57.8
EBITDA(십억원)	276	286	240	300	348
PER(x)	29.9	28.3	6.2	18.7	11.8
EV/EBITDA(x)	13.2	10.1	8.3	6.8	5.6
PBR(x)	1.3	0.8	0.5	0.6	0.6
ROE(%)	4.3	3.0	8.3	3.1	4.8
DY(%)	0.4	0.7	1.5	1.4	2.2

주: 2017년 10월부터는 분할 후 존속된 사업회사 실적임.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매수(유지)

목표주가: 1,900,000원(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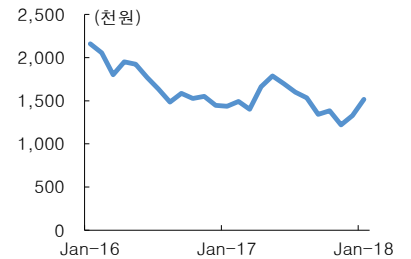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1/31)	2,566
주가(1/31)	1,516,000
시가총액(십억원)	1,212
발행주식수(백만)	1
52주 최고/최저가(원)	1,888,691/1,205,0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3,176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43.8/20.1
주요주주(%)	신격호 외 9인 51.4
	국민연금 10.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4.1	(5.2)	5.6
KOSPI 대비(%p)	10.1	(12.0)	(18.5)

주가추이



자료: WISEfn

이경주

kjlee@truefriend.com

- 만약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 투자 포인트
- 이외 액면 분할은 그룹 내 자본금과 유동성이 흡사한 롯데제과가 이미 진행을 했으므로 롯데칠성도 실행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액면분할 시 유동성 보강으로 주가에는 중립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에스원(012750)

NDR 후기: 수익성 호전, 높은 배당 성향 유지

18년 수익성 호전, 배당 증대를 긍정적으로 평가

- 우리는 에스원과 함께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NDR 실시
- 투자가는 18년 경영 계획, 4분기 일회적 비용 내역, 최저임금 영향, 최근 경쟁 상황, 신규 사업과 M&A, ADT캡스 매각, 배당 등에 관심이 많았음
- 18년 수익 호전, 배당 증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18년 1분기부터 수익 호전

- 18년은 손익 위주의 경영으로 비용 절감에 노력, 수익성 호전 예상
- 최근 보안 시장은 ADT캡스, NSOK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경쟁이 심화되나 에스원은 우량 가입자 유치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
- 17년 4분기에 인력 효율화 비용 등 150억원의 일회적 비용 반영
- 18년 1분기에는 수익성 호전 예상(우리는 1분기 영업이익 599억원 추정, 전년동기대비 2.9%, 전분기대비 57.2% 증가)

얼굴인식 출입관리 시스템이 매출 성장에 기여

- 18년부터 계열사를 시작으로 얼굴인식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판매 및 운용수익 발생(15년 전 스마트카드 도입 시 매출 450억원)
- 건물관리 부문 용역 외주 업체(청소 등)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아 비용이 늘어날 것이나 18년 건물관리 가격에 전가해 상쇄될 것

60% 배당 성향 유지, 현금은 신규 사업을 위한 M&A에 활용

- 보유 현금(17년 3,350억원, 18년 4,500억원 추정)은 배당 확대, 신규 성장 사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M&A에 활용할 것
- 17년에 높인 배당성향 60%를 유지할 것. 18년 배당 증대 예상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매출액(십억원)	1,800	1,830	1,942	2,072	2,196
증가율(%)	10.1	1.7	6.1	6.7	6.0
영업이익(십억원)	173	206	203	230	256
순이익(십억원)	155	141	143	164	185
EPS(원)	4,544	4,157	4,239	4,856	5,430
증가율(%)	40.3	(8.5)	2.0	14.6	11.8
EBITDA(십억원)	320	351	348	376	403
PER(x)	21.9	21.1	23.4	20.5	18.3
EV/EBITDA(x)	10.9	8.4	9.8	8.8	7.9
PBR(x)	3.3	2.7	2.8	2.7	2.5
ROE(%)	16.6	13.5	12.6	13.4	14.0
DY(%)	1.2	1.4	2.5	2.9	3.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매수(유지)

목표주가: 122,000원(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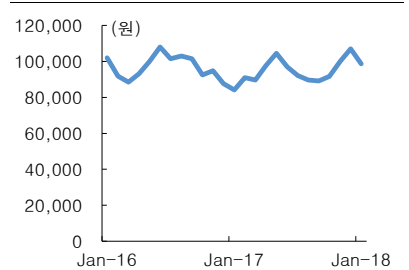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1/31)	2,566
주가(1/31)	99,400
시가총액(십억원)	3,777
발행주식수(백만)	38
52주 최고/최저가(원)	107,000/82,3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6,022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63.3/53.3
주요주주(%)	Secom Co Ltd 25.7
	삼성SDI 외 5인 20.8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7.1)	7.8	18.2
KOSPI 대비(%p)	(11.9)	(7.0)	(10.6)

주가추이



자료: WISEfn

양종인

jjyang@truefriend.com

조민영

minyong@truefriend.com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과 기관 매도 속 이틀 연속 하락세

- 뉴욕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글로벌 주요국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는데 따른 경계감에 다우지수가 300P 이상 급락하는 등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 2,560P선을 밀리며 출발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분할 이슈로 8% 이상 급등하며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세로 하락전환 후 약보합세로 마감.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 장중 900P선을 위협받기도 했으나 개인과 연기금 매수세로 낙폭을 다소 줄이며 913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평창동계올림픽과 러시아월드컵 수혜 및 저평가 분석에 제일기획이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실적 호조 및 자사주 매입 소식에 부국증권이 10% 가까운 강세를 보임.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음악사업 진출로 음원 B2B 유통 운영을 담당하게 된 아이리버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5G 시대를 맞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및 신규서비스 매출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텔코웨이가 신고가를 기록. 또한, 삼성전자가 연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소재를 개발 중인 원익큐브가 수혜주로 부각되며 초강세를 보였으며,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하며 장중 8% 이상 급등했던 삼성전자는 차익실현 매물로 보합세로 마감. 반면, 전일 자회사 이슈로 급등했던 삼양홀딩스는 차익실현 매물로 하루만에 급락했으며, 지난해 실적 부진 및 업황 부진 우려가 지속되며 GS리테일이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제일기획(030000) ▶21,250 (+7.59%)	저평가 분석에 신고가 경신 -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3.8%의 배당수익률과 4,000억원을 상회하는 순현금을 감안할 경우 현재 주가는 저평가됐다는 분석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러시아월드컵의 수혜 및 핵심 지역인 중국에서의 기저효과가 시작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부국증권(001270) ▶28,100 (+9.77%)	지난해 실적 호조에 급등세 -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4.9%로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4.1%, 35.6%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며 급등세 -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100만주 취득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
아이리버(060570) ▶8,640 (상한가)	최대주주의 음악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SM엔터테인먼트 · JYP엔터테인먼트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신규 음악 플랫폼을 론칭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한가 - 엔터테인먼트 3사는 엑소,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등 인기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약 15%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임. 동사는 오는 2월1일부터 엔터테인먼트 3사 음원의 B2B 유통 운영을 맡게됨
원익큐브(014190) ▶2,920 (+14.73%)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기대감에 강세 -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 동사의 전자소재 부문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은나노 와이어는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순금 가격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루뎀P&P(009580) ▶5,480 (+2.81%)	- 펄프가격 강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및 고배당 메리트가 부각되며 신고가 경신
더존비즈온(012510) ▶47,900 (+4.02%)	- 지난해 연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며 업계 최고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ICT 생태계 구축 등 신사업을 발판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TPC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TPC (048770)	7030 (+3.8)	6770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고정비 및 시장 진입비용 반영 완료에 따른 턴어라운드 전망 - 정밀제어를 요구하는 자동화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모션콘트롤 사업부분의 실적 개선 전망 -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전망
코텍 (052330)	15,250 (+4.1)	14,650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슬롯머신 1위, 2위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한 카지노용 모니터 생산 기업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 - 고객사의 커브드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믹스 개선으로 카지노모니터 부문의 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 현금성자산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 보유
녹십자 (006280)	236,500 (+4.6)	226,0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진입장벽과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유하고 있어 Valuation Premium 부과 가능 - 국내 Plasma와 백신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 확보로 구조적 성장 기대 - Plasma 증설효과 발생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기대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17,500 (+41.1)	12,4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까지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글로벌 업체 중 Best performer로 자리매김할 전망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PTT, 페트로나스, SABIC 등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발주처의 투자 재개 전망 - 급속한 턴어라운드에 따라 2018년 예상 PER은 16.6배까지 낮아질 전망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14,650 (+12.7)	13,0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얼카메라와 3D카메라 시장의 확대와 고사양화에 따른 검사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하반기부터 신규 거래처와 장비 매출이 추가되며 삼성과 애플이 전략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를 탑재함에 따른 수혜 전망 - 18년 예상 PER 8.4배로 Peer 업종의 평균 PER 16배 대비 저평가
다나와 (119860)	15,650 (+15.1)	13,6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의 보급과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쇼핑 증가에 따라 가격비교 수요의 저변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 PC중심에서 가전/가구,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으로의 플랫폼 확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기대 -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되는 순현금 보유로 주가 하방경직성 확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SK이노베이션 (096770)	204,500 (+0.0)	204,500 (12/28)	44,967	5,308	2,919	31,321	6.4
			- 정유 수급이 타이트해져 내년 정제마진 상승 가능성 확대 - 지속 가능한 ROE 개선을 감안할 때 주당 적정가치는 372,153원 혹은 그 이상 상승 가능 - 내년 배당수익률은 6%에 근접하여 매력적인 배당도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 가능				
CJ E&M (130960)	90,400 (-7.5)	97,700 (12/28)	1,982	110	166	4,308	21.8
			-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해외 매출 성장 가속화 전망 - 디지털 광고 등 고마진 사업 확대로 수익성 향상 전망 - 사업 부문간 시너지 확대, 자회사 가치 상승 예상				
한솔시큐어 (070300)	6,270 (+6.3)	5,900 (12/28)	19	3	2	272	21.7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8,000 (+37.4)	13,100 (12/28)	92	11	9	1,446	11.9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SK텔레콤 (017670)	265,500 (-0.6)	267,000 (12/28)	17,753	1,757	3,033	42,955	6.4
			- IPTV 수익호전, 사물인터넷 가입자 증가, 5G 서비스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 - 콘텐츠 이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요금상향으로 이어져 손익에 긍정적 -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 배당 매력				
이앤티 (091120)	19,100 (+8.5)	17,600 (12/28)	191	14	10	659	26.6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이노베이션, CJ E&M,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1/31(수) 종가	등락률(%)			
		1D	5D	1M	YTD
KOSPI	2,566.46	-0.05	1.12	4.01	4.01
KOSPI200	333.38	-0.01	0.75	2.66	2.66
대형주	2,486.60	0.04	0.76	2.79	2.79
중형주	2,999.17	-0.66	1.99	9.65	9.65
소형주	2,271.74	-0.34	3.52	11.72	11.72
KOSDAQ	913.57	-0.80	2.10	14.42	14.42
KOSDAQ150	1,664.36	-1.38	1.70	17.72	17.72

수급	1/31(수)	1D	5D	1M	YTD
	KOSDAQ	1,183	1,235	1,156	1,156
거래대금 (십억 원, 기간 평균)	KOSPI	10,473	8,840	7,138	7,138
	KOSDAQ	7,477	8,309	8,664	8,664

(단위: %, bp)

금리	1/31(수)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31	1.30	11.90	17.20	17.20
국고채 5년물	2.60	2.70	15.00	25.50	25.50
국고채 10년물	2.81	5.50	16.00	33.80	33.80
회사채 3년(AAA-)	2.70	1.20	10.50	15.70	15.70
회사채 3년(BBB-)	8.96	1.20	12.00	16.70	16.70

(단위: 원, %)

외환	1/31(수)	1D	5D	1M	YTD
원/달러	1067.75	0.56	0.23	-0.10	-0.03
원/100엔	981.54	0.54	-0.42	-3.56	-3.53
원/유로	1328.62	-0.16	-0.82	-3.67	-3.95
원/위안	169.78	-0.05	-1.49	-3.44	-3.38

업종 지수	1/31(수)	등락률(%)			
		1D	5D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733.14	1.41	-1.42	-0.4	-0.4
반도체	2,715.19	-0.4	-0.2	-2.46	-2.46
헬스케어	4,759.70	-2.03	3.61	23.78	23.78
은행	999.03	0.15	-0.23	6.64	6.64
에너지화학	2,909.68	-0.77	2.17	5.26	5.26
철강	2168.37	-1.04	-1.01	5.62	5.62
방송통신	1,031.53	-0.27	-2.14	0.49	0.49
건설	645.21	-0.64	3.59	15.04	15.04
증권	873.57	-1.08	1.56	22.6	22.6
기계장비	643.81	-1.03	2.18	20.29	20.29
보험	2038.03	2.29	1.92	5.26	5.26
운송	637.51	0.21	3.13	9.73	9.73
유틸리티	1,254.82	-1.16	-1.00	6.55	6.55

업종 지수	1/31(수)	1D	5D	1M	YTD
기술주	2,040.96	-1.62	1.88	18.98	18.98
소재	1,530.74	-0.75	-0.72	-2.53	-2.53
산업재	358.93	0.28	-0.60	14.73	14.73
필수소비재	1,167.64	1.44	1.52	14.28	14.28
자유소비재	1,236.01	1.03	-2.71	5.72	5.72
정보기술	763.66	-0.54	-0.39	0.65	0.65
생명기술	5,919.41	-1.85	1.96	25.66	25.66
문화기술	2,347.57	0.51	-0.99	4.99	4.99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5,544	2,936	2,355	683	146	348	157	25	360	452	116
	매도	4,749	3,601	2,171	748	127	298	185	27	571	399	61
	순매수	795	-665	-185	-65	19	50	-28	-2	-211	53	54
	2018년 1월 누계	-2,112	1,956	-632	-409	342	117	-192	-75	-471	57	787
	2018년 누계	-2,112	1,956	-632	-409	342	117	-192	-75	-471	57	787
코스닥	매수	6,552	509	415	126	18	85	63	5	45	55	50
	매도	6,354	687	397	123	20	69	99	7	53	45	53
	순매수	198	-177	-18	3	-2	17	-36	-2	-8	10	-3
	2018년 1월 누계	1,174	128	-999	-616	-33	233	-436	-41	-69	-37	-304
	2018년 누계	1,174	128	-999	-616	-33	233	-436	-41	-69	-37	-304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소프트웨어	289	반도체	-1,337	자동차	430	반도체	-5,763
	상사, 자본재	149	IT가전	-380	보험	222	IT가전	-478
	보험	120	화장품, 의류, 완구	-247	상사, 자본재	143	소프트웨어	-289
	기계	107	통신서비스	-169	화학	121	조선	-263
	운송	88	필수소비재	-146	은행	114	건설, 건축관련	-224
종목	KODEX 레버리지	627	삼성전자	-1,132	현대차	575	삼성전자	-6,173
	삼성물산	438	삼성SDI	-399	SK하이닉스	319	삼성SDI	-564
	카카오	340	아모레퍼시픽	-245	삼성화재	138	카카오	-253
	KODEX 코스닥 150선물인버스	185	한국전력	-136	엔씨소프트	119	NAVER	-238
	삼성전기	94	SK하이닉스	-129	LG디스플레이	91	아모레퍼시픽	-175
	삼성증권	86	KODEX 200선물인버스2X	-118	SK	88	현대중공업	-171
	기아차	84	POSCO	-111	삼성에스디에스	79	LG이노텍	-148
	KODEX 200	62	NAVER	-109	POSCO	73	삼성중공업	-108
	GS건설	61	LG디스플레이	-101	호텔신라	64	KT&G	-90
	넷마블게임즈	59	KT	-99	OCI	63	대림산업	-87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미디어, 교육	154	건강관리	-242	소프트웨어	75	건강관리	-1,216
	소매(유통)	43	디스플레이	-91	반도체	28	디스플레이	-271
	호텔, 레저서비스	34	소프트웨어	-83	화장품, 의류, 완구	18	미디어, 교육	-110
	은행	30	반도체	-45	화학	16	기계	-86
	기계	14	화학	-25	건설, 건축관련	15	비철, 목재등	-63
종목	셀트리온헬스케어	89	바이로메드	-159	필어비스	88	셀트리온	-711
	CJ E&M	64	필어비스	-78	메디톡스	48	셀트리온헬스케어	-457
	위메이드	49	서울반도체	-67	SK머티리얼즈	33	서울반도체	-253
	스튜디오드래곤	44	티슈진	-62	피에스케이	33	신라젠	-90
	에스티아이	44	코오롱생명과학	-41	레고캠바이오	22	대한광통신	-78
	셀트리온	43	피에스케이	-28	아모텍	20	CJ E&M	-74
	파라다이스	42	아모텍	-26	뉴트리바이오텍	20	포스코캠텍	-59
	옵트론텍	35	웹젠	-26	웹젠	19	티슈진	-44
	제이콘텐트리	32	이엔에프테크놀로지	-23	텍셀네트컴	19	파라다이스	-34
	GS홈쇼핑	26	신라젠	-23	이엠텍	17	컴투스	-33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322,101	2,495,000	0.20	-2.08
SK하이닉스	53,508	73,500	0.55	-3.92
현대차	35,685	162,000	3.85	3.85
POSCO	33,175	380,500	0.26	14.44
LG화학	30,496	432,000	-0.92	6.67
NAVER	29,996	910,000	-2.26	4.60
삼성바이오로직스	29,013	438,500	0.57	18.19
KB금융	28,139	67,300	0.60	6.15
삼성물산	26,936	142,000	2.53	12.70
삼성생명	25,800	129,000	3.20	3.61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	38,726	315,700	-3.34	42.8
셀트리온헬스케어	18,815	137,000	0.74	26.2
신라젠	7,209	105,900	-3.81	13.3
바이로메드	4,260	267,000	-8.03	63.5
CJ E&M	3,501	90,400	0.56	-7.5
메디톡스	3,439	608,000	1.79	25.4
티슈진	3,423	56,500	-5.04	9.1
셀트리온제약	3,251	97,500	-2.01	59.3
필어비스	3,031	251,200	-1.26	1.5
포스코캠텍	2,918	49,400	-3.52	24.1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41.50	-0.99	-0.82	5.55	5.55
	MSCI 선진국	2,214.11	-0.90	-0.81	5.26	5.26
	MSCI 신흥국	1,247.63	-1.61	-0.88	7.70	7.70
DM	S&P500	2,822.43	-1.09	-0.59	5.57	5.57
	Dow Jones	26,076.89	-1.37	-0.51	5.49	5.49
	Nasdaq	7,402.48	-0.86	-0.77	7.23	7.23
	Russell 2000	1,582.82	-0.96	-1.73	3.08	3.08
	영국 FTSE 100	7,585.25	-0.04	-0.76	-1.33	-1.33
	프랑스 CAC	5,491.81	0.33	-0.06	3.37	3.37
	독일 DAX 30	13,252.64	0.42	-1.21	2.59	2.59
	스페인 IBEX	10,462.50	0.33	-0.95	4.17	4.17
	일본 니케이	23,098.29	-0.83	-3.52	1.46	1.46
	홍콩恒生	32,887.27	0.86	-0.22	9.92	9.92
	EM	코스피	2,566.46	-0.05	1.12	4.01
코스닥		913.57	-0.80	2.10	14.42	14.42
중국 상해종합		3,480.83	-0.21	-2.21	5.25	5.25
홍콩 H지수		13,561.65	1.29	-0.44	15.82	15.82
인도 Sensex		35,828.13	-0.57	-0.86	5.20	5.20
베트남 VN		1,110.36	-0.02	2.11	12.81	12.81
인도네시아 JCI		6,617.00	0.63	0.02	4.11	4.11
러시아 RTS		1,281.25	0.49	-0.86	10.99	10.99
브라질 Bovespa		84,482.46	-0.25	3.44	10.58	10.58
멕시코 Mexbol		50,382.86	-0.50	0.24	2.08	2.08
글로벌 업종		에너지	185.20	-0.05	-2.73	6.15
	소재	228.20	-0.09	-0.70	5.75	5.75
	산업재	306.42	-0.18	-1.15	4.85	4.85
	경기소비재	278.73	0.04	-1.14	5.09	5.09
	필수소비재	314.26	0.14	-0.45	4.90	4.90
	헬스케어	567.85	0.11	-1.23	7.51	7.51
	금융	196.08	0.34	-0.86	7.72	7.72
	IT	384.32	0.02	-0.92	5.76	5.76
	통신서비스	182.13	0.24	-0.39	2.79	2.79
	유틸리티	170.35	0.15	-0.46	-0.19	-0.19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88.94	-0.24	-0.29	-3.45	-3.45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15.42	0.16	-1.15	-3.82	-3.07
미주	브라질	3.18	-0.81	1.80	4.13	4.13
	멕시코	18.62	0.73	-0.67	5.55	5.55
아시아	한국	1,067.75	0.56	0.23	-0.10	-0.03
	일본	108.73	0.05	0.45	3.59	3.64
	중국	6.29	0.55	1.09	3.46	3.46
	대만	1.24	-0.10	-0.33	-3.55	-3.54
	인도	63.66	-0.08	0.05	0.02	0.33
유럽	유로존	1.24	0.36	0.31	3.62	3.68
	영국	1.42	0.32	-0.35	5.10	5.02
	러시아	56.16	0.39	-0.02	2.72	2.72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		(단위: bp)				
지역	국가	증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70	-1.86	5.48	29.59	29.59
	캐나다	2.30	1.50	6.60	25.00	25.00
	브라질(USD)	9.78	1.20	-22.90	-47.50	-47.50
	멕시코	7.68	0.70	18.40	2.50	2.50
	유럽	독일	0.67	-1.30	8.20	24.30
	영국	1.45	-0.70	4.60	26.30	26.30
	프랑스	0.95	-1.60	8.80	16.20	16.20
	이탈리아	2.01	-2.10	10.00	-0.70	-0.70
	러시아	4.15	-2.70	6.70	28.30	28.30
아시아	한국	2.81	5.50	16.00	33.80	33.80
	일본	0.09	-1.20	0.10	3.70	3.70
	중국	3.94	-1.40	-1.90	3.30	3.30
	호주	2.81	-4.80	-1.30	18.30	18.30
	인도	7.42	-1.30	11.40	9.50	9.5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증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56.61	-0.86	-1.03	3.20	3.20
	LMEX 지수	3,400.00	-0.90	-1.05	-0.55	-0.55
	CRB 지수	442.85	0.30	1.26	2.43	2.43
에너지	원유(WTI)	64.50	-1.62	0.05	6.75	6.75
	원유(Brent)	68.59	-0.62	-2.75	2.57	2.57
	천연가스	3.06	-4.32	-12.88	3.52	3.52
금속	금	1,335.40	-0.37	-0.10	1.99	1.99
	은	17.06	-0.40	0.86	-0.51	-0.51
	구리	7,050.00	-0.49	1.83	-2.72	-2.72
	아연	3,496.00	-1.52	2.46	5.33	5.33
	알루미늄	2,207.00	-0.81	-1.01	-2.69	-2.69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287.90	0.74	1.85	2.04	2.04
	옥수수	361.50	0.77	2.92	3.06	3.06
	밀	457.25	1.78	8.48	7.08	7.08
	대두	1,000.25	0.88	1.42	4.00	4.00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증가	1D	5D	1M	YTD
미국	VIX	14.17	-4.19	23.54	28.35	28.35
유럽	VSTOXX	14.45	-2.44	16.60	6.94	6.94
한국	VKOSPI	14.54	2.18	13.95	20.56	20.56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2	23	24	25	26
韓> 실적발표: 롯데케미칼 美> 실적발표: Netflix, Verizon, P&G 유럽> 1월 ZEW 서베이 예상 (31.8, n/a, 29.0) 1월 소비자기대지수 (1.3, 0.6, 0.5) 日> BOJ 통화정책회의 (-0.1%, -0.1%, -0.1%) 11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1.0%, 0.9%, 0.3%)	韓> 실적발표: LG디스플레이 美> 실적발표: GE 1월 마켓 제조업 PMI (55.5, 55.0, 55.1) 12월 기준주택매매(백만) (5.57, 5.70, 5.81)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5%, n/a, 4.1%) 유럽> 1월 마켓 제조업 PMI (59.6, 60.3, 60.6) 日> 1월 닛케이 제조업 PMI (54.4, n/a, 54.0)	韓> 실적발표: POSCO 美> 실적발표: GE 1월 마켓 제조업 PMI (55.5, 55.0, 55.1) 12월 기준주택매매(백만) (5.57, 5.70, 5.81)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5%, n/a, 4.1%) 유럽> 1월 마켓 제조업 PMI (59.6, 60.3, 60.6) 日> 1월 닛케이 제조업 PMI (54.4, n/a, 54.0)	韓> 실적발표: SK하이닉스, NAVER, 현대제철 4Q GDP SA YoY (3.0%, 3.4%, 3.8%) 美> 실적발표: Ford, Paypal, Celgene, Freeport Mcmoran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33, 237, 216) 12월 도매재고 MoM (n/a, 0.4%, 0.8%) 12월 선행지수 (0.6%, 0.5%, 0.4%)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0.4%, -0.4%, -0.4%)	韓> 실적발표: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1월 소비자심리지수 (109.9, n/a, 110.6) 美> 실적발표: Intel 4Q GDP 연간화 QoQ (2.6%, 3.0%, 3.2%) 12월 내구재주문 (2.9%, 0.6%, 1.7%) 유럽> 12월 M3 통화공급 YoY (4.6%, 4.9%, 4.9%) 日> 12월 전국 CPI YoY (1.0%, 1.1%, 0.6%)
29	30	31	1	2
韓> 실적발표: 대림산업 美> 실적발표: Lockheed Martin 12월 개인소득 (0.4%, 0.3%, 0.3%)	韓> 실적발표: S-Oil 美> 실적발표: Pfizer, Mcdonalds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125.4, 123.0, 122.1) 유럽> 4Q GDP SA YoY (2.7%, 2.7%, 2.8%) 1월 소비자기대지수 (1.3, 1.3, 1.3) 日> 12월 실업률 (2.8%, 2.7%, 2.7%) 12월 유효구인배율 (1.59, 1.57, 1.56)	韓> 실적발표: SK이노베이션 美> 실적발표: Qualcomm, Boeing FOMC 금리결정 (n/a, 1.50%, 1.50%)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4.5%) 中> 1월 제조업 PMI (51.3, 51.6, 51.6)	韓> 실적발표: KT&G, LG유플러스 1월 수출 YoY (n/a, n/a, 8.9%) 1월 CPI YoY (n/a, n/a, 1.5%) 美> 실적발표: DowDupont, AT&T, Amazon, Mastercard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35, 233) 1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5.5) 유럽> 1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9.6) 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51.5, 51.5)	韓> 실적발표: 하나금융투자, 풍산 美> 실적발표: Visa, Apple, Exxon Mobil 1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 (n/a, 200, 148) 1월 실업률 (n/a, 4.1%, 4.1%) 1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95.0, 94.4) 12월 내구재주문 (n/a, n/a, n/a)
5	6	7	8	9
韓> 실적발표: SK텔레콤	韓> 실적발표: KT, 고려아연, 만도 美> 실적발표: GM, Allergan 1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9.5, -50.5)	韓> 실적발표: 신한지주, CJ E&M 美> 실적발표: Gilead Sciences, Disney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韓> 윤선만기일 실적발표: KB금융, 현대중공업 美> 실적발표: Nvidia, Humana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기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日> 1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2.7%, 1347.3)	韓> 실적발표: 기업은행, 롯데쇼핑, 한온시스템 美> 실적발표: AIG, 12월 도매재고 MoM (n/a, n/a, n/a) 中> 1월 PPI YoY (n/a, n/a, 4.9%) 日> 12월 3차 산업지수 MoM (n/a, n/a, 1.1%)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일)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